

강이야기

4

River & Culture

잠재력과 절망의 강, 니제르강(Niger River)



이성해 | 국토해양부 서기관
주나이지리아대사관 1등서기관
(seonghai@hanmail.net)

아프리카! 이 검은 대륙을 떠 올리면 검은 토인들이 사는 미개지 또는 코끼리와 사자가 게으르게 어슬렁거리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떠올리게 된다. 작년 5월, 두려움과 기대를 함께 지니고 이곳 나이지리아로 처음 올 때는 그저 보통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내면서 처음에 나이지리아, 나아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몇 가지의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는 연중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오해이다. 이곳에서 4계절을 지내보면 이곳도 나름대로 계절의 변화가 있고 기후가 생각보다 사람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를 가나 사과리를 즐길 기회를 가지고 아프리카, 적어도 나이지리아에 온다면 큰 낭패를 본다. 오랜 기간의 남획으로 야생상태의 사파리는 케냐, 탄자니아, 나미비아 등 아주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다. 또 발가벗고 원시생활을 하는 토인을 상상한다면 이것도 아프리카를 너무나 모르는 얘기이다.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는 아부자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답지 않게 계획도시의 면모를 보여

주는 말쑥한 도시이다. 또 식민지 시절부터 확장하기 시작한 라고스(Lagos), 포트하코트(Port-Harcourt) 등의 도시들도 도시의 모양은 갖추고 있다. 웬만한 지역은 저개발 상태라고 할지라도 현대 문명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곳에서 지내다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놀라게 된다.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 제국들이 열강의 침탈을 받고 지금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서부 아프리카의 젓줄 니제르강

니제르강(Niger River)은 아프리카 대륙 서부를 활모양으로 휘감아 도는 국제하천이다. 보통 아프리카 대륙을 사람의 머리모양에 비유하는 데 뒤통수 아래쪽에서 시작하여 후두엽을 휘감고 숨골이 있는 부분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형상이다. 총 연장은 4,180km에 이르러 나일강, 콩고강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강이다. 하천의 유역면적은 2,092,000km²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인데, 남한의 면적이 100,000km²이니 유역면적만 해도 20배에 달하는 큰 강이다. 이렇게 길고 유역면적이 넓다보니 니제르강과 관련된 국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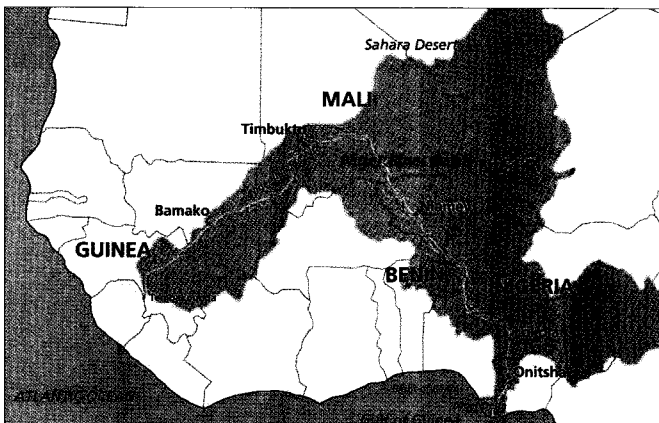
10개에 이른다. 니제르강의 발원지인 기니(Ginea)를 거쳐 말리(Mali)를 휘감아 돌고, 니제르(Niger)와 베냉(Benin)의 국경을 통과한 다음, 나이지리아(Nigeria)를 거쳐 기니만(Gulf of Ginea)에서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간다.

니제르강의 본류가 거처지는 않지만 유역 내에 포함된 다른 국가들은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알제리(Algeria), 차드(Chad), 카메룬(Cameroon)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국가 간에 하천사용과 관련된 협의 등의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1964년에 '니제르강 위원회(River Niger Commission)'라는 것을 만들었고, 1980년에는 이를 '니제르유역청(Niger Basin

Authority)'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니제르유역청은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Niamey)에 본부를 두고 있다.

니제르강은 발원지에서 시작하여 기니만에서 대서양으로 흘러가기까지 다양한 기후지대를 거친다. 발원지인 기니의 고원지대는 연강수량 2,300mm의 열대 우림지대이며 말리로 거쳐 가면서 점차 사바나 지대를 거쳐 거의 사막화된 지역을 통과하게 된다. 이곳에 이르면 연강수량은 250mm에 불과하다. 다시 나이지리아를 거치면서 연강수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하구지역인 그 유명한 니제르 델타(Niger Delta)에 이르게 되면 연강수량은 4,000mm의 다우지대를 지난다.

니제르강에는 2개의 특징적인 총적지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중상류지대에 위치한 니제르 내륙델타(Niger Inland Delta)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구에 위치한 석유가 많이 나고 무장단체가 출몰하는 니제르 델타이다. 델타에 이르러서는 강의 유로가 미로처럼 변하여 복잡한 습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중상류의 델타는 초지형태의 습지로 구성되는 반면 하구에 위치한 니제르 델타는 맹그로브(Mangrove) 열대림이 무성한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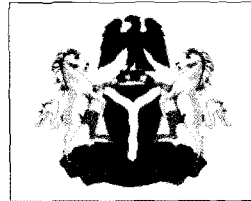
〈그림 1〉 니제르강 유역도

니제르강의 존재는 서부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생활과 역사의 터전이다. 인구 1억4천만명의 나이지리아는 나라명칭 자체가 '니제르강의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 아예 강이름 자체를 국호로 사용하는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을 정도이면 니제르강이 이곳 사람들의 생활과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니제르강은 말리나니제르와 같이 사바나 또는 사막기후에 속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귀중한 수자원의 공급처로서 농업과 어업 그리고 수로 교통의 기반이 되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니제르강에는 200종 이상의 생물체가 존재한다. 메기, 아프리카송어, 폐어, 돌잉어 등 많은 종류의 어류들이 서식하여 귀중한 어업자원이 된다. 이곳에서 시골지역을 다니다 보면 강가에서 물고기를 파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민물고기의 크기가 사람의 팔길이를 능가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어 놀랄 때가 많다. 그리고 무슨 메기가 그리 큰지 한 마리를 가지면 어른 4명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크기이다.

니제르강은 역사적으로도 서부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왕국으로 호령하였던 가나(Ghana)왕국과 말리(Mali)왕국의 터전이 되었다. 이 두 개의 왕국은 유럽의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침탈하여 자원과 노예를 농단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나름대로의 문명을 건설했었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니제르강의 생명력과 풍족함이었다. 아프리카의 자연은 엄청난 생산력을 지니고 있다. 사실상 관개시설만 제대로 갖추어 진다면 인류의 식량문제는 아프리카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실제로 이곳 재래시장에서 팔리는 농산물들의 품질을 보면 대단하다. 우리가 맛있어 하는 하지감자가 여기서는 늘상 일년 사시사철 구할 수 있다. 옥수수 또한 강원도 찰옥수수 저리가라 할 정도로 맛있는 것들을 길거리에서 싼 값에 사서 먹는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는 구근식물인 암(Yam)이나 카사바(cassava)는 특별한 비료나 영농기술 없이도 소출이 많다. 물론 싼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구근식물들은 현재는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바이오연료(Bio Fuel)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한 유럽의 여러 회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와 같은 식물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 대다수가 종사하는 농업과 어업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니제르강은 이처럼 서부아프리카의 어머니로서 자리 잡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국가를 상징하는 문장(紋章)은 니제르강과 베누에강(Benue River)을 두 마리의 말이 지키고 있는 모



(그림 2) 나이지리아 문장

양을 하고 있다. 베누에강은 니제르강의 중요한 지류로서 나이지리아의 중앙부 로코자(Lokoja)라는 곳에서 니제르강과 합류한다.

수탈과 슬픔의 역사를 간직한 니제르강

니제르강의 생산력은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왕국문명을 잉태하였다. 유럽의 열강들은 바로 니제르강의 풍부한 생명력을 주목하고 식민지 침탈의 거점으로 니제르강 일대를 삼았다. 바로 노예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서부아프리카인 것이다. 미국에서 흑인들을 비하하여 부를 때 '니거(Nigger)'라고 한다. 이것은 노예무역 당시 인구밀도가 높았던 니제르강 유역에서 주로 노예들을 실어 갔던 데에서 연유한다. 나이지리아에서 현지인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그 엄청난 덩치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람한 근육동 서양인이나 동양인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육체적인 조건을 가졌다. 이러한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노예무역



(그림 3) 니제르강 상류기니의 풍경



상들에게 매력 있는 상품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에는 당시 노예무역을 위해 유럽의 상인들이 건설한 요새와 노예상인들이 거주하던 저택들이 유적처럼 남아 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수도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유럽 상인들의 무역거점에서부터 도시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도 원래는 수도가 해안 도시인 라고스(Lagos)였는데 92년 수도를 아부자(Abuja)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절망은 아마도 아프리카의 해안에 유럽상인들의 배가 나타나면서 잉태되었을 것이다.

노예상인들이 나타나면서 시작된 수탈의 역사는 노예무역을 금지된 이후에는 약탈적인 상아무역, 금광채굴,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이어지면서 지속된다. 18세기말부터 이어지던 이와 같은 수탈의 역사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에 압력을 넣어 아프리카 제국들이 독립을 이룰 때까지 계속된다. 1960년대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얻게 되지만 절망의 역사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1960년 10월 1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군사쿠데타와 지도자 암살 등 정치

적 불안은 이 불행한 대륙에서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압력으로 독립은 주었지만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이어가려는 유럽 열강들의 암묵과 공공연한 지원 속에 군사독재세력들은 정권을 유지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연된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국가의식 쇠퇴 그리고 일반국민의 무지는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력을 지닌 아프리카를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땅으로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유명한 “니제르 델타”(Niger Delta)이다.

잠재력과 절망의 땅, 니제르 델타

니제르 델타는 그 길이가 190km에 달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델타로서 나일 델타보다 규모가 크다. 이 니제르 델타는 바로 니제르강이 수백만년 동안 엄청난 산고 끝에 낳은 생명의 보고이다. 이 땅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면서 평화롭게 살아 왔다. 문제는 1957년 이 니제르 델타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부터이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으로 1일 석유생산능력이 3백만 배럴에 달한다. 이 석유라는 것이 사실은 니제르강이 쏟아낸 유기물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진 것인데 현재까지의 확인 매장량이

362억 배럴이며 현재도 탐사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매장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니제르 델타의 석유가 나이지리아의 경제와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다. 나이지리아는 하루에 한때는 280만 배럴을 생산하여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의 지위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치안 불안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2백만 배럴에도 미치지 않아 아프리카 최대산유국의 지위를 올해 4월 앙골라에게 내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재정수입의 95%를 차지하는 막대한 석유수입은 이 나라에게 주어진 신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재앙의 원천이다. 진정성을 가진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막대한 부는 바로 부정부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은 석유광구의 분양과정과 석유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뒷돈을 챙겨가고 이를 서로 많이 차지하려는 지도층간의 권력다툼으로 민생은 간 데가 없다.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는 계획도시로 무계획하게 커져버린 해안의 대도시들에 비하면 외관은 말짱하다. 그리고 거리를 누비는 벤츠, BMW 등의 고급차들은 여기가 아프리카저개발 국가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국민들은 하루 1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극빈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초등학교 수준의 의무교육도 공염불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니제르 델타 무장단체이다.



〈그림 4〉 니제르 델타 무장단체

니제르델타해방운동(Movement of Emancipation of Niger Delta)이 가장 대표적인 무장단체로서 정치적인 구호는 거창하다. 즉, 자신들의 땅에서 얻어지는 석유수입의 배분에

서 소외된 인민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고 억압에서 해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민권이나 인간해방과 같은 고매한 것이지만 실제로 무장단체들은 자신들의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 외국인 납치, 시설파괴를 일삼고 있다. 또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강탈한 원유와 석유제품을 암시장에 판매하는데, 그 규모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나다. 즉 무장단체라는 것의 실체가 비정규적인 정치조직이라기 보다는 강배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무장단체들은 기관총(Machine Gun)뿐만 아니라 대전차화기와 다이내마이트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납치, 방화, 시설파괴를 일삼고 있다. 실제로 무장단체들은 2006년 이후 2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을 납치했는데, 이중에서 의도적으로 살해한 경우는 없다. 살해할 경우 몸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납치해 가면 대접을 잘 해 준다는 소문이다. 더러 납치과정에서 우발적인 오발사고 또는 피랍자의 질병악화로 사망하는 경우는 있지만, 중동에서의 경우와 같이 종교적인 선전을 위해 처형하지는 않는다. 이 나라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생각하면 일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나이지리아의 미래를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대로, 권력이 없는 자들은 총을 들고 군침을 흘리면서 석유수입을 더 차지하려는 아비귀환의 이전투구가 니제르 델타의 현주소이다.

나이지리아가 70년대에는 아프리카 최대의 식량수출국이 었다. 니제르강의 엄청난 생산력과 함께 비교적 변함이 없는



〈그림 5〉 니제르 델타 포트하코트 외곽의 시장 풍경

기후 등 농업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이다. 그러나 지금은 필요한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석유 이외에 철광석, 석탄, 구리, 금, 역청 등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아직도 세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잠재력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러나 석유의 재앙은 이 나라를 절망의 땅으로 만들었다.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이들의 관심사는 석유에 집중되어 있다. 석유 이외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러한 사이 석유 이외의 모든 산업은 쇠락하고 말았다. 철길

에 기적소리가 사라진지 오래이고 수돗물은 일주일에 한두 번 공급된다. 그리고 전기 없는 캄캄한 밤에 들려오는 부자 집의 발전기 소음은 정적을 깨뜨린다. 비전을 제시하는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는 석유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부정부패라는 괴물의 먹이로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을 잉태한 것이 바로 서부 아프리카의 찻줄 니제르강인 것이다. 이 땅에 희망과 평화가 올 날이 언제일지를 생각하면 니제르강의 누런 물줄기가 너무나 슬퍼 보인다. ●

